

## 시장으로부터 메시지

2020년 5월 8일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으로부터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기간 중 히메지시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4명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생활 필수품의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 교통 기관 등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부는 5월 4일에 긴급사태선언의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효고현을 포함한 특정 경계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최저 7할, 최대 8할의 접촉 기회의 감소」를 목표로, 외출 자속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효고현에서는 대처 방침의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고, 또한 현 내의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휴관이나 휴업을 요청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메지 시에서는, 계속하여 5월 말 까지 「접촉기회 8할 감소」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의 관광, 문화시설, 스포츠 시설, 대관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 까지 휴관합니다.
- 이벤트나 행사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행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일정을 중지 또는 지연합니다.

-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 농원(学校園)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휴교합니다.
- 보육원, 보육원에 준하는 시설(認定こども園)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시행하고 있던 특별 보육의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 시의 공원에 대해서는, 대형 놀이 기구의 사용 금지, 공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폐쇄를 시행합니다.
-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6월 사용 분부터 6개월분의 기본 요금을 전액 면제 합니다.
- 특별 정액 부금에 대해서는, 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의 수속을 5월 4일부터 개시합니다.

이어서, 시민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자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봄비는 장소에 외출하여, 자신을 접촉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탁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계속하여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틀림없이 지금이 감염 확대를 저지하는 중요한 고비입니다.

저는 히메시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을 중요히 여기며, 시민의 가까이에서 시정을 운영하며, 하루라도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하여 시민 여러분이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